

여기서 길린자 새 생명 얹으리라...



이화 창립 120주년 기념 특집
대뉴욕 동문회

거울

1886년 최초의 이화학당 한옥교사



메리 F. 스크랜트

EWHA HAKTANG - 1886



8대 신봉 조 교장

이화 100주년 기념관



13대 정창용 교장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



발행일 : 2006년 3월 / 발행 : 대뉴욕이화여고동문회



이화 창립 120주년 기념 특집
대뉴욕 동문회



기
록

이화 연혁	4
회장 인사말	5
Scranton 장학재단 발족	6
알리는 말씀, 뉴욕 / 북미 동창회 소식	8
사진으로 보는 이화 동문회	10
2006, Rise, Shine, Glorify God 이화동문합창단	11
글모음	12
나의 건강과 행복	원숙자('54)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조봉옥('58)
하늘의 선물	최학녀('58)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조소자('61)
이국의 호수가	김영자('61)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	김영민('62)
메리스크랜튼 여사님!	김수자('61)
독도에 띄우는 편지	김영자('61)
은퇴 (Retirement)	최재숙('63)
寶石街의 散策	서재숙('64)
그리운 이화동산의 추억들	어혜숙('67)
배꽃 그늘에 앉아	허금행('68)
졸업 30주년기념 동창회를 다녀와서	조문경('72)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신혜진('76)
각 기 동문 소식	26
동창 회비 / 기금 납부상황	42
18회장단 예산보고	42



연혁

1880~	1886. 05. 31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顿 여사가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관을 창설
	1887. 10. 22 고종황제께서 이화학당이란 교명을 하사
1890~	1890 – 1938 미국인 여선교사 로드 와일러(2대), 페인(3대), 프라이(4대), 월터(5대), 아펜셀러(6대), 쳐치(7대) 학당장에 각각 재임
1900~	1904 4년제 중학교 설치
1910~	1915 썸손 기념관 준공
1920~	1923 프라이 기념관 준공(1975년 화재로 소실)
1930~	1935 본교로부터 이화여대 이전 1938–1961 신봉조 교장(8대) 재임
1940~	1946 4년제 고등학교 학제를 6년제 중학교로 개편
1950~	1950 신 학제에 의해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개편 1951 6.25사변으로 부산 영도에 가교사를 설치하고 개교 1953 서울로 환도하여 완전 복교, 자매학교 서울 예술고등학교 설립 1956 석조 노천극장 준공 1958 스크랜顿 기념관 준공
1960~	1961–1971 서명학 교장(9대) 재임
1970~	1970 본관을 새로 준공 1971 평준화 정책으로 중학교 폐지되고 각 학년 20학급씩 60학급의 고등학교로 개편 1971–1982 정희경 교장(10대) 재임 1974 류관순 기념관(강당) 준공
1980~	1980 교육관 준공 1982–1995 심치선 교장(11대) 재임 1985 전인항 기념도서관 준공 1986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1988 학교법인 이화학원에서 예원학교 및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이화예술학원으로 분리 1989 강병훈 재단 이사장 취임
1990~	1992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1994 이화백년사 간행 1995 최종옥 교장(12대) 취임 1996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
2000~	2000 정창용 교장(13대) 취임



인사말



이 채 임 ('66)
이화여고 동창회 회장

친애하는 이화 가족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 2006년 병술 해를 맞이한지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맥 가정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건강과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 워 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늦은 새해 인사드립니다.

2006년은 우리 모교 이화가 미 연합 감리교 여성국의 여성 선교사, Mary Fitzgerald Scranton여사에 의하여 창설되어 우리 여성의 빛이 된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화 가족들이 이억 만리 타향인 이곳에서 모교 개교 1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화의 특별한 2006을 맞이하여 본 동문회는 이곳 우리 이화 가족들을 한번 돌아다 보고파 120주년 특집 Newsletter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특집 Newsletter을 위해 정성 어린 글들을 보내주신 동문들 그리고 각 기 대표, 동문들의 협조 (각기 사진, 소개서 그리고 참여금) 그리고 협조해주신 기관들께 본 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인 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끝으로 제 18대 회장단 임원들께, 지난 2년(거의) 동안, 본 동문회를 위해 물신 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그들의 노고에 이 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Scranton 장학재단 일주

(이화 개교 120 주년을 맞으면서)



이 채 임 ('66)
이화여고 동창회 회장

2006년은 우리 모교 이화가 미 연합 감리교 여성국의 여성 선교사, Mary Fitzgerald Scranton여사에 의하여 창설 된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 이화가 한국의 여성 교육에 공헌 한 업적은 우리 모두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이화가족들이 세계 각국, 각 분야에서 놀라운 공헌을 하고 있음 또한 우리의 자랑이며 이와 같은 성장의 힘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뜻 깊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있는 이화 동문들이 설립자를 기리는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120년 전 이화를 세웠듯이 미 연합 감리교 여성국을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개발국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사용되게 될 Scranton 장학재단을 북미 이화 총 동문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120년 동안 성장한 우리, 이제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놀라운 역사가 탄생 될 수 있는 세계의 여성, 아동들에게 돌릴 수 있을 만큼 성장, 발전했음은 고무적인 사실이며 긍지를 갖게 합니다.

여기 이화를 사랑하시는 김영자('61) 동문께서 Scranton 장학 재단 창립에 대하여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전해 오셨습니다.

"I believe that the kind American donor from Ohio had a special vision and trust in Korean people some 120 years ago that they had the hearts and minds to nourish and flower the seeds planted for Ewha Hak Dang through the great mission and charity by Mrs. Scranton"

미주 총동창회의 뜻에 일조하는 뜻에서 Greater NY 이화 동창회의 Scranton NY 장학기금 위원회를 조직 하였습니다.

• Greater New York Scranton Scholarship Committee •

고 문: 박소화, 한명숙, 이보영, 방경자

위원장: Greater NY 동창회장

위 원: 박이자, 김송옥, 정주실, 김정수, 최정숙, 강홍순, 이금영, 장정희, 이선덕, 이금희, 조명희, 이청미, 김수자, 박수자, 김영민, 박기원, 전명자, 손정임, 최재숙, 김유신, 서재숙, 김기경, 이영희, 이정화, 이채임, 심재경, 최성남, 이명신, 정경숙, 이상은, 전명혜, 김정선, 최황숙, 김현애, 이재현, 원유봉, 오봉희, 좌은자, 이승아

이제 본 회는 동문들께 Scranton 장학기금의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화가족의 일원으로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신 이화, 그리고 그를 창설한 창설자에게 120년 후이지만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사랑하는 이화 가족 여러분, 북미주 이화 동문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승고 한 뜻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우리 이화의 사랑과 관심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 감리교 여성국과 이화 학당의 유래 •

- 1869년 : 미 연합 감리교 여성국 조직됨
 1883년 : Ohio 연회에서 Rebenna의 한 여성의 무기명 현금이 있었음
 1885년 : 연회의 임원으로 재직 중 이던 Mrs. Mary Fitzgerald Scranton 여사가 의사로 있던 아들 William Scranton 내외와 함께 한국에 초대선교사로 파송
 1886년 : 이화 학당 창설함
 1886 - 1938년: 1938년 12월 신봉조 교장선생님 취임 전까지는 미 감리교 여성국에서 파송된 여 선교사들이 교장선생님 및 선생님으로 많이 근무했음
 1975년 : Frey Hall 화재 때도 미 감리교 여성국에서 \$ 30,000을 모교에 보냄

• Scranton 장학기금 발족 경위 •

- 2004년 3월 미 연합 감리교 여성국에 근무하시는 김혜선목사 ('74)를 통해 김활란 박사 장학금은 있으나 Mary Scranton 장학기금이 없음을 알게 됨
- 2004년 10월말, 북미주 이화 여고 동창회 발족과 동시에 본 임시 위원회에서 Mary Scranton 장학기금을 위한 재단을 창립하기로 결정함
- 2006년 5월 미 연합 감리교 전국 대회 때 기증하기로 함

• Scranton 장학기금 NY Status As of 02/20/06 •

날짜	Gyr	이름	약정기간	Pledge	금액 Payment
01 02/05/06 p	46	박소화	완료	1,000	1,000 02/05/06
02 02/05/06 p	46	한명숙	완료	1,000	1,000 02/12/06
03 01/26/06 p	52	이보영	200 X10	2,000	
04 01/26/06 p	53	방경자		1,000	
05 01/26/06 p	53	최은희		1,000	
06 02/07/07 p	54	원숙자		1,000	
07 02/07/07 p	54	최정옥		2,000	
08 02/10/07 p	54	장기숙		500	
09 02/07/07 p	56	곽순영	5년	1,000	
10 02/07/07 p	57	장정희	4년	2,000	
11 11/30/05 p	61	김수자	4년	20,000	4,000 12/10/05
12 02/09/07 p	61	김경자	4년	2,000	
13 02/07/07 p	61	김영자	4년	2,000	500 02/24/06
14 02/04/07 p	63	이군자		500	
15 02/06/07 p	63	손종임	4년	2,000	
16 02/04/07 p	66	김희자		300	
17 01/26/06 p	66	최성남	완료	2,000	2,000 12/24/05
18 01/26/06 p	66	이채임		2,000	
19 01/26/06 p	66	심재경	완료	1,000	1,000 02/03/06
20 02/10/07 p	67	이명신		2,000	
21 01/26/06 p	69	전명혜		1,000	
22 02/07/07 p	70	이미경		1,000	
23 01/26/06 p	2	김현애		1,000	
TOTAL				49,300	9,500



알리는 말씀

- * 개교 120주년 축하예배, 작은 음악회 및 만찬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우리의 120주년 생일을 함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 2006년 4월 30일 (일요일) 시간 : 저녁 05:00
장소 : 아콜라 교회 (S-52 Paramus Road, Paramus, NJ 07652 / (201)843-7970)
- * Greater NY 총 동창회 - 새(19대) 회장단 선출
날짜 : 2006년 6월 24일 (토요일) 시간 : 아침 12:00
장소 : NJ 대원 (700 Palisadium Drive Cliffside, NJ 07010 / (201) 224-2211)
- * 행사준비관계상 참석 여부를 늦어도 행사 2주전에 알려 주십시오

뉴욕 동창회 소식

1. 07/01/04 제 18 대 회장단 출범
2. 08/31/04 Picnic을 Palisades Interstate Park에서 52명 참석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냄
3. 10/03/04 NY 합창단, 연합 감리교 한인선교교회 선교 축제,
동문 김경자('61) 여성국회장 취임식에 참석 노래 선물하다
4. 10/29-31/04 LA에서 북미총동창회 발기총회에 5명 참석/ 북미총동창회 발기됨
5. 11/28/04 강미자 독창회 후원
6. 01/08/05 제1회 각기대표 모임
7. 01/15/05 2005년 이화 동문의 밤 (이화 118년 교복변천사 및 각 시대 교복 Fashion Show)을
NJ 대원에서 많은 동문들과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냄.
8. 03/19/05 제2회 각기 대표모임
9. 06/18/05 제3회 각기 대표 모임
10. 06/28/05 18대 회장단의 두번째 Picnic을 Palisades Interstate Park에서 갖음.
강병훈이사장님 서울에서 오셔서 방문 중 Picnic 에 참석
11. 07/16/05 배재 120주년 예배에 참석, 합창단 축하 찬양 선물
11. 07/23/05 제4회 각기 대표 모임 및 Picnic 평가회
12. 09/12/05 LA 합창제를 위하여 Greater NY 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10 AM, 아콜라 교회에서
맹 연습 중
- 05/06 이화 개교 120주년 축하예배, 자축 작은 음악회 및 자축 만찬
13. 04/30/06 NY 합창단, Anahaim, California 에서 열리는 미 연합감리교 여선교 전국대회 참석
14. 05/06/06 NY 합창단 LA, California 에서 열리는 개교 120주년 축하, Scranton 장학 기금 이화 합
창제 참석
15. 05/08/06 Greater NY 총 동창회 - 새 (19대) 회장단 선출 장소 : NJ 대원, 시간 : 12 PM

북미 총동창회 소식

- * 11/08/05 Scranton 장학기금 재단 창설



이모 저모

- * 이화총동창회(서울) web site : www.ewha1886.net
- * Philadelphia 이화 web site : www.ewhaghs.com
- * 모교 이화고등학교(서울) web site : www.ewha.hs.kr
- * 강병훈 이사장님 2005년 6월 28일 Picnic때 방문
- * 조영준 이사장님 2005년 11월 3일, 이화 재단 이사장 부임 인사 차 NY 방문
- * 김수자('61) 동문의 사위 이승진 검사, 한인 최초로 퀸즈 검찰청 부장검사 탄생
- * 김영민('62) 동문은 2005년 5월 13일 Louisiana Baptist University에서 Doctor of Philosophy (PHD) (School of Christian Counseling)를 받음.
- * 김옥지('64) 동문은 2006년 3월 1~25일, 아들 전영석이 만든 4편의 Short Film과 함께 어머니와 아들의 특별 전시회를 "New World"라는 Title로 Phoenix Gallery에서 갖음.
- * 최성남('66) 동문은 2006년 3월 4일,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IMAGINE THE POWER"라는 주제로 Leadership Conference for Korean American Women 을 NYU에서 성황리에 마쳤음
- * 이명신('67) 동문, 2006년 2월, 지난 10년 동안 한인 가정 가족상담소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기에 뉴욕 한인 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여 받음
- * 정은숙('73) 동문, Staten Island에 살면서 제1회 김상목목사님 장학금으로 2명에게 지불되었고 제2회(올해)부터는 Dream World of Staten Island란 이름으로 주정부에 정식 등록된 자선 단체로 장학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올해는 12명에게 장학금이 지불됨
- * 신혜진('76) 동문, 2005년 7월 30일 "한국수필" 문단 정식회원 됨. "한국수필"지 7,8월호에 신인 수상 작가로 선정됨,

Note : 각기 소식을 본 동창회 임원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05 동문의 밤 Party



1/15/05 동문의 밤 Party



1/15/05 동문의 밤 Party



6/28/05 Picnic



미주 총동창회 모임



미주 총동창회 모임



배재 120주년 예배 참석



조영준 이사장님 방문



이화동문합창단 합창 연습



2006, Rise, Shine, Glorify God 이화 동문 합창단

역사적인 해 2006년, 새로운 삶의 해 2006년 새로운 생명의 해 2006년 이화동문 선후배 여러분, 특별히 동문 합창단 여러분 반갑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04년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4회 이화동문 합창제의 참석을 준비하며 진행할 때에 보다 더 큰 보람된 일 이화의 아름다운 음악, 이화를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연합감리교 여성국의 크고 작은 행사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만명의 회원이 있고, 더욱이 우리 이화의 설립자 Many Scranton 여사를 보내준 기관이니 그곳의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전국대회는 그 규모가 10,000명 이상 수용하고 행사의 모든 순서는 전문인들이 부서별로 나누어서 모든 일에 조직적인 규모 있는 모임입니다. 그 해의 행사의 주제에 맞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 하는 그 모임에 우리 이화 동문 합창단이 참석하여 토요일 저녁 Program에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Jan Love 여성국 국장 최고의 책임자 또 우리 한인 이민여성을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여성국에서 수고하신 이화동문 김혜선(74) 목사님, 또 새로 회장으로 선출되신 이화출신 김경자(61) 회장님, 이 모든 분들을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성경 말씀이 실감이 되게 적재적소에 계시게 하여 우리는 드디어 전국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Andrea Hatcher, (Treasurer)

Andris Salter(Asst., Deputy General Secretary)

Yvette Moore(Evening Plenary Committee Chair)

Sarah Brokus (Assembly Technical Director)

Jeneane Jones (영상책임자)

이 분들은 우리 이화의 순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분들입니다.
5월 6일 Anaheim에서 만날 때까지 이 분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사를 기다리며 여러 동문과 함께 기도하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및 행사가 되게
2. Mary Fitzgerald Scranton 여사를 파송한 미연합감리교여성국에 감사
3. 이화 설립자 Mrs. Mary Scranton을 기억함
4. 오늘도 미개발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성국 파송 모든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격려를 보냄
5. 전국대회에 참석한 8,500명의 회원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6. 120년 전에 받은 그 사랑의 빛을 최대한 보답할 수 있게 7. Mary Scranton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게
8. 제2의 이화학당이 창립되는 역사적인 기회되게
9. 우리 모교 이화 학당이 복의 통로가 되게
10. 아~ 아~ 이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화 동문 합창단, 영원히 찬양 하기를

현재까지 이화의 졸업생이 6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뉴욕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에 동창 주소록에 6~700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30명~40명 정도의 인원이 합창단원으로 온 정성 다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도 즐겁고 보람되지만 그보다 먼저 이화를 사랑하시는 마음, 선후배를 사랑하시고 동창회의 발전,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몸소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일일이 그 분들의 성함을 기록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더하시어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며 이화의 동문들 모두 옳은 일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일어나며 어느 곳에서 그 무엇을 하던지 차하고 선한 일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며 크고 작은 우리의 생각, 언어, 행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7주**



김 수 자 ('61)
뉴욕이화동문합창단장
전국대회 코디네이터



나의 건강과 행복



원숙자 ('54)

지난 35년간 Manhattan Fifth Ave Facial Salon에서 여성 10여명에게 Facial Massage를 해오면서 내 나름대로 터득한 나의 건강과 미용법을 외람되지만 여기 실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행복의 전부인 양 물질의 욕망에 집착하다 보면 귀중한 건강을 잊어버리고 귀중한 행복을 놓쳐 버리고 만다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고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은 내 몸이고 내 영혼은 나 자신의 어머니이며, 건강한 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아기를 키우듯 늘 어루만지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따뜻하게 가꾸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위한 나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몸이 건강하면 세상 전부가 다 행복해 보이고 온 세상 전부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에서도 진실한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미 이화 동산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한 음식의 섭취 방법

- 1.밥만 먹지 않고 2-3회 빵과 같이 먹음
- 2.단백질(고기와 생선)을 주 2-3회 반듯이 섭취함
- 3.치즈(단백질) 도 주 2-3회, 그러나 덩어리로 많이 먹으면 배 속에 가서 뭉칠 우려가 있다 하여 피한다.
- 4.매일 물 4 oz (8 - 10 cups / Juice 포함)
- 5.Coffee는 하루에 1 cup 만 마신다. (5 cups 이상은 유방암, 자궁 근종 등의 부작용이 있다 하여 피한다)
- 6.Chocolate은 주 1회, 그러나 많이 먹으면 근육통, 관절염 심리 불안이 온다 하여 피한다.
- 7.Wine은 주 2-3회, 많이 마시면 혈관이 약해지고 불안하다 하여 피함
- 8.Vitamin 과 Mineral을 꼭 같이 먹는다.
- 9.악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꼭 복용한다.
- 10.푸른 야채는 cranberry 나 사과 Juice와 같이 갈아서 주 2-3회 마신다. (많은 양을 먹기 위해)
- 11.야채 종류 푸른색이면 다 좋으므로 5-6 가지 합해서 (세리리, 파세리, 케일, 어성초, 단더라인, 아티초코, 아스파라거스, 베이슬, 딜, 싸란트로, 민트, 미나리, 워터크레스, 그린 빙, 이태리 부로커리, 부로커리, 피망, 케베지) 먹는다. 이런 야채는, 해독, 변비예방, 피부미용 및 단백질을 소화촉진 시켜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 준다 한다.

나의 건강 예방법 (BODY MASSAGE) 주 1회

- 1.Swedish Massage (유럽)
- 온 몸의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법이다.

2.Shiatsu Massage (동양)

피부 깊이 있는 경락과 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촉진 시켜 피와 림프(Lymph)를 몸 속에서 잘 돌게 도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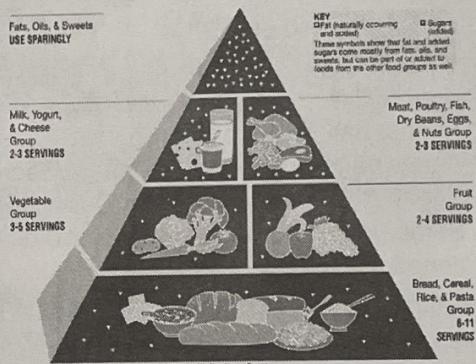
2.림프(Lymph) 드레이너지(Drainage) Massage (주 1회 또는 한 달에 한번)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림프(lymph) 액을 땀 샘구멍으로 밀어내어 몸 속의 독소를 피부 밖으로 밀어내어 피부 와 모공을 열어 피부가 숨을 쉬게 만들어 산소를 몸에 흡수시켜 새 세포를 만들어 주면서 몸의 병을 내보내고 균형을 잡게 해 줍니다.

이화 가족들의 건강과 이웃들이 모두 건강 하시기를 바라며 행복한 웃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Food Guide Pyramid

A Guide to Daily Food Choices



NUTRITION TIPS

PYRAMID ... YOUR WAY TO HEALTH

누가 Smart Eating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One Size doesn't Fit All"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선 각자의 개성, 영양가와 에너지 필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FOOD GUIDE PYRAMID"은 U.S. Department Agriculture에서 건강한 식사를 위한 매일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또한 건강한 사람이라도 연령, 임산부, 남,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1. "Variety on Your Plate" 어떻게 하면 음식으로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 할 수 있는가를 생각 하여야 합니다. 각 식품군에서는 영양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음식도 모든 영양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Orange Juice가 Vitamin C와 Folate를 공급 하지만, Beta-Carotene은 공급 못합니다. Cantaloupe은 Beta-Carotene과 Vitamin C는 많이 함유하나, Folate은 적습니다.

2.Balance for Your Needs

Food Guide Pyramid은 각 식품군의 대한 착용 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고, 많은 Calorie 필요에 따라 Serving 숫자나 Portion 양이 조정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과잉 양을 섭취하는 것이 비만의 결과가 된다는 것 당연한 사실입니다.

3.Moderation for Your Health

음식과 음료의 선택은 각 개인의 개성과 에너지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잉 Fat, Cholesterol과 당분 섭취는 피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균형 있고 조절된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시는 바로 지름 길임은 당연한 사실이지요.

Good Nutrition and Active Living are Important Parts of a Healthy Lifestyle..

PUT THE PYRAMID TO WORK FOR YOU !!!!!!!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조 봉 옥 ('58)

이것은 3대에 걸친 우리집 이화 여인들의 이야기다.

미신을 철저히 신봉하는 집으로 1891년에 시집을 가셨던 외증조 할머니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부인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셨다. 그리고 여섯달 뒤 인천에 세워진 첫 감리교 예배당이었던 제물포 내리교회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인천바닥에 소문이 퍼질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다섯자녀중 큰 딸의 세례명은 엘렌, 그 동생은 헬렌이 되었는데 후에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증조 할아버지가 애란, 활란으로 고쳐 주셨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후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증조 할머니는 딸들을 모두 공부시키기로 결심하시고 기숙사가 있는 이화학당으로 보내셨다. 그때는 과년한 처녀들이 학부로 나들아 다닐 수 없었기에 기숙사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다. 이것이 김애란과 김활란 두 자매가 이화와 인연을 맺게 된 첫 발디딤이었다.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정동에 초가집 아홉채와 버려진 땅을 사놓고 1886년에 문을 연 학당에 어느 고관의 소실이라는 첫 학생이 들어온 것이 5월 31일, 그 학생은 곧 포기하고 나갔지만 그 날을 창립일로 삼게되었고 1887년 학생이 7명이 되었을 때 민비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언니를 따라 활란이 입학한 1907년은 이미 이화학당이 창립 20주년을 맞고 있었다. 스크랜튼 부인이 은퇴했고 미스 프라이가 교장으로 있을 때였다.

나의 외할머니가 되신 애란은 인물도 좋고, 성품도 모난데가 없는데다 공부도 뛰어나게 잘해서 프라이 교장은 할머니가 졸업하면 첫 외국유학생으로 일본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동생 역시 그 언니의 뒤를 이어 너무도 뚜렷한 존재가 되어 갔다. “너는 나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알게 해준 학생이다. 너를 가르치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당시 영문학을 담당했던 아펜젤러 선생의 칭찬 말씀이었다.

외할머니가 열아홉이 되셨을 적 고종황제 때 정삼품을 하셨던 김달하라는 분의 청혼이 들어왔다. 일년 후면 졸업하는데, 그리고 교비로 유학까지 약속된 딸에게 청혼이라니 안 되겠다고 거절했다. 이화학당에서 몰래 김애란의 모습을 보고 간 그분은 끈기있게 청혼을 계속했다. “네가 싫으면 이번 혼인은 없던 것이라 하자”는 부모님의 위로가 있었지만 생활형편은 너무 각박했다. 김씨댁에서는 처가를 위해 집한채 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하지 않는가. 외할머니는 나 하나 결혼해서 우리집에 도움이 된다면 왜 못하랴 싶어 결정을 내리셨고 이를 지켜본 열한살짜리 동생 활란은 혼자 강당에 들어가 끝없이 울었다고 한다.

외조부모님은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올렸는데 이를 알리는 기사가 신문에도 나왔고 민비께서는 바구니 속 그득히 아름다운 폐물을 보내오셨다.

외할머니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외할아버지는 나라가 일본 사람에게 넘어가자 조국 광복의 뜻을 품은 채 1913년 가솔을 다 이끌고 북경으로 망명해 가셨다. 내 엄마 김정옥이 한살 때였다. 그러나 중국대륙에서 생사를 초월한 독립가들과 함께 일하시던 그 분은 1925년 과격한 열사단의 오해로 가족 앞에서 피살되셨다. 엄마가 그때 열네살이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외할아버지의 한을 풀어 드리고자 일생을 괴로워 하셨다.

외할아버지의 피살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엄마와 형님 유옥의 공부도 다 중단되고 말았다. 공부가 더 하고 싶었던 엄마는 너무 처량해서 울기만 하다가 문득 어려서 뵈었던 이모님 김활란을 생각했다. 부모님이 항상 칭찬하시던 그 분, 처제의 총명함을 사랑하신 아버님이 “아, 처제는 또 하나의 달이구나” 하며 乙月이란 호를 지어주셨던 이모님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라지 않던가.

한문으로 짧은 편지를 올렸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오너라 공부시켜주마”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셨던 엄마는 학문 높은 외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셨던 책들을 한아름 쌌들고 북경을 떠나 외할머니와 함께 서울 당주동 이모님 댁에 정착하고 소학교, 이화여중, 이화여전을 차례로 다니시게 되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피살로 몸저 누우시고 그로 인해 서른 여덟의 짧은 나이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곱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를 좋아 하셨던 그 분은 형님을 극진히 보살피던 동생 활란의 정성스런 반주에 맞춰 찬송가, 그리고 특히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를 돌아가시기 얼마전까지 청청하게 부르셨다고 한다.

나의 엄마(김정옥)는 부모님을 일찍 잃은 슬픔을 딛고 이모 할머니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마치신 뒤 이화여대의 교수로도 오래 지

내신 분이다. 중국에서 갓 와서 소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중국어 밖에 할 줄 몰라 성적이 밑바닥을 돌아왔다. 그러나 그 분 특유의 인내와 집중력으로 곧 옷도는 성적으로 올라갔다. 글도 잘 쓰고, 조리 있게 응변도 잘하며 앞장서서 잘 잘못을 가려내는 판단력도 길러 나갔다.

이화 여중고에서의 공부가 너무 재미 있었다고 하셨다. 여고 2학년이던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학생 만세 사건때는 주동 학생 몇 명과 함께 뛰어나가다가 잡히신 일도 있었다. 물론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셨다. (고문에서 일본인은 말로만 하고 실제 고문은 한국인들이 했기 때문에 일본인 기록에는 자기들은 고문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순조롭게 이화 여전 학생이 되신 후에도 공부뿐 아니라 여전히 여러면에 정렬을 펼 부으셨다. 풍금도 치시며 주일 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셨다. 3학년 때에는 “보나리오” 농촌운동에 참가해 강원도에서 여름을 보내셨고, 4학년 때는 응변대회에서 “농촌은 지식인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일등을 했는데 그 제목 그대로 졸업 후 다시 농촌에서 봉사한 첫 CASE가 되기도 하셨다. 계속해서 농촌에 머무르지 못한 이유는 어느 날 일본 기마 순경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엄마에게 두시간내 떠나지 않으면 당장 체포하겠노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고 그때 기차역에서 올며 불며 배웅하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생전 못 잊는다고 하셨다.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찾으신 직장이 수송소학교, 이것 이 그곳 교무주임으로 계셨던 아버지(조석봉)를 만나는 인연이 되었다.

이화대학에 계신 엄마, 동구여상을 설립하신 아버지 그 두분 밑에서 나는 아무 걱정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화여중에 들어갔다. 1952년 부산 피난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걷고 걸어서 영도 다리를 건너, 판자교실이 야기자기 모여 있는 그 조그만 운동장에 들어서면 왜 그렇게 신이 나도록 좋았는지! 우선, 책가방을 내려 놓자마자 친구들이랑 출렁기, 고무줄을 하며 두 갈래로 딴 머리를 펼렁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이 떠 오른다. 그때 사귄 친구들 대부분은 그 많은 세월이 지난 이날이 때까지도 나의 일생 친구로 남아 있다.

다음 페이지로..



우리에게 지식의 첫 근본을 넣어 주셨던 선생님들은 또 어떠신가? 언젠가 두루두루 찾아뵙고 큰 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서울 수복후 정동의 이화 소슬 대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가슴이 훨랑 거렸다. 이 아름다운 교정이 내가 앞으로 다닐 곳이구나.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았다. 방과후에는 이쪽 동산 나무 밑에 앉아서 시를 쓰겠노라 끄적거리 보기도 하고 저쪽 동산에 걸려있는 그네를 무서움 없이 훨훨 타 보기로 했다. 그저 모든 것이 즐거웠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즐겁게 해 주었을까? 그 근본 이유는 우리 앞날을 바라보셨던 신봉조 교장 선생님의 혼명하신 교육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이화는 개개인의 특징을 존중하며 이를 북돋아 준다는 것. 얼마나 자혜로 우셨나! 이것은 자라면서 엄마가 내게 들해주셨던 말씀과 비슷해서 내가 더 푸근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내게 이화의 열을 심어 주시고 2년전 돌아가셨다. 너무 멀리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친다. 그래도 난 이 딸의 엄마로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이를 나의 축복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엄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셨으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시기도 했다.

난 외할머님을 뵙적이 없다. 그런데 가끔 엄마가 눈물 흘리시며 들려주셨던 그 분의 젊었을적 모습을 상상하면서

혼자 그리워 할때가 종종 있다. 그 분도 나를 사랑해 주셨을 텐데...

여자달의 교육을 강조 하셨던 중조 외할머님은 내가 고등학교때 돌아가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다. 아침에 일어나 시자마자 혼자 찬송가를 부르신 뒤 뒷짐짓고 마루를 웠다갔다 하시며 애국가를 반드시 3절까지 부르시던 모습은 우리가 6.25 피난중 진해 이모택에 몇 달 있을 동안 매일 뵙었다. 그 분의 신앙에 대한 강한 집념과 애국정신을 김활란 이모 할머님이 들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일생을 사시면서 한국 여성 교육에 혼신을 다하신 분이다.

이화의 동산은 우리 가족의 3대를 키워준 곳이다. 1958년 나는 이화에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채 그 정동의 소슬대문을 나섰다.

외할머님이 마지막까지 즐겨 부르셨다는 노래, 그 분의 청청한 목소리가 들려 오는 듯 하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메기, 내 사랑하는 메기야
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메기, 장미화는 피어 만발하였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메기, 내 사랑하는 메기야

우리 여인들의 꿈을 활짝 피워준 이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이화 바로 그곳이 금잔디 동산이었다.

하늘의 선물



최 학 녀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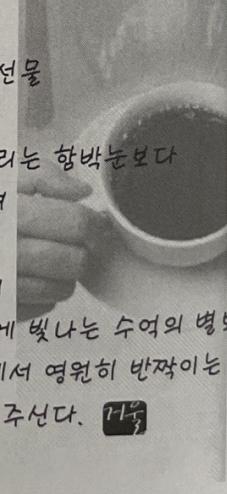
Dr. Ph.D Helen Choi Rhoe

우리 이화가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우리는 자유, 평화, 사랑의 사도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다시 모국의 구름다리로
사랑의 향기로
기나긴 반세기의 인생당으로
건, 선, 미의 배꽃으로
활짝 피는구나

우리 이화가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우리는 아침 새벽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해님처럼
밝고 싱그런 웃음으로 환하게 비치네
우리의 우정이야말로

저 화산의 용암보다 더 뜨겁게 부글거리며
천둥따라 학 쏘는 번개불보다 더 눈이 부시며
폭풍우를 열싸 안고 은하수를 통해
충주고 있는 저 무지개보다 더 황홀하다

우리 이화 가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우리의 꿈과 이상은
추운 동지설달에 풍풀 내리는 함박눈보다
더 아름답고 신비스러우며
저녁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의 장막이 덮혀 올 때
저 공중에서 광채 찬란하게 빛나는 수역의 별보다도
우리의 감성, 이성, 영성에서 영원히 반짝이는
하나님의 창된 빛이 되어 주신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조 소 자(61)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부터 무모하고 지루한 날이었다.

화창한 봄날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은 어느 초겨울 눈이 평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마음속까지 음산한 날이었던 것 같다. 손에 일도 안 잡히고, 그렇다고 할 일도 없이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은 요상한? 그런 하루였다. 아무

생각도 없이 설합을 뒤적거리다가 1996년도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이화 합창제 Video가 손에 잡혔다.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에 Video를 틀었다. 어마! 순이 선생도(지금 합창지휘자) 그 때에 소프라노에 있었네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반가웠다. 한 낮 익은 선배의 얼굴이 나온다. 와아! 이 선배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으시네.. 아니? 이 선배님은 뭔지가 꽤 오래 되시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실까? 아이고, 요 깍쟁이 후배 가시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쁘네…… 줄줄이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들뜨고 어느새 기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삼십분전 까지도 침울했던 마음이 2002년 Lincoln Center 합창제로 해서 2004년 세종문화회관 합창제까지의 video 속에서 행복의 추억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무엇보다도 200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합창제는 나에게 가장 감사하고 행복을 주었던 합창제였다.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이 새로 수리 단장을 한 직후 차원을 높인다는 뜻에서 오케스트라 반주가 없이는 연주를 허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대 단원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 합창제를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가졌다. 오케스트라 단원과 약 150명의 서울, LA, NY 합창단이 무대를 꽉 채웠으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반주에 맞추어 합창을 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웅장했던 그 기분은 아직도 나를 봉 뜨게 만든다.

키가 작은 나는 엘토 맨 앞줄에 섰었는데 바로 내 앞에는 심벌즈(Cymbal) 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씩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던 순간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물론 음악을 전공하시는 동문들은 오케스트라와 연주하실 기회가 많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번 정도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였다. 그 당시 남편도 친구분과 함께 합창을 관람했는데 그 분 말씀이 과연 이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합창제를 주관할 수 있다고 칭찬에 과찬까지 해주셨다. 간혹 가

다가는 선의의 비평도 듣지만은 이 또한 모든 것 이다 이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 동문들과 만나서 우리가 아직도 건제 하다는 것을 서로 보여주는 것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하고 생각한다.

요즈음은 2006년 LA 합창제 연습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이면 한번씩 모이는 선후배 속에서 웃고 떠들며 그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운전도 아직도? 안하는 오로지 동기인 연미화씨를 pick up하여 함께 가는 덕에 일주일에 한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가는 도중 밀렸던 얘기가 많다 보니 길을 헤맬 때가 많은 것 빼놓고는 모든 것 이 너무 즐겁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마다 반가운 이바구가 그치지 않아 합창연습은 10시 반이나 되어야 시작이 된다.

얼굴 얼굴마다 이번에는 좀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반짝들 비친다. 녹음까지 해 가지고 가시는 박소아 선배님의 이화 사랑과 열정에는 감히 따를 수는 없지만, 나 역시 이번만은 옆 사람에게 슬쩍 커닝하여 부르는 수준에서 탈피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나 목소리와 박자가 따라 주어야 할텐데…

흔히들 주위 사람들에게 덕담을 부탁 드리면 추억을 많이 만들라고들 한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추억과 더불어 살라고들 한다.

그때에는 무슨 소린가 하였더니 60과 70의 딱 중간에 서보니 옛 말이 한결같이 명언이다. 설합 속에 가득한 그 많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추리고 추려서 딱 한 권의 앨범으로 만들어 내 후손에게 남길 때 분명히 이화 합창제에서 찍은 그 많은 추억들 중에 몇 장은 끼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이화 동창 Leader들에게 감사하며…… 병원에서 얼마 전에 퇴원하신 문정희 선배님께서 합창제에 선금을 1천불씩이나 보내주신 이화 사랑에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배님, 건강하세요.

NY 합창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회장 이채임씨, 수자 사모, 지휘자 김순이 선생님, 반주 석경애씨를 위시하여 열심히 뛰어주시는 후배님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감사 또 감사하다.

특히 이번 LA 합창제는 참가한다는 의미가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여 덤으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국의 호수가

여름이 주충,
떠날 듯 머무를 듯
구월하순 호수가에
치마자락 적시는데



김영자('61)

그대

검푸른 이국의 호수는
물오리때 끌어 안고
기다란 햇살 두루입네

그 호수는,
백년묵은 내음새로
여름이 떠날새라
늦은 향기 뿜어주고

이국살이 혼탁해진
내 눈동자
씻고 또 씻어주는데

무심코 일어난 실바람이
사르르.....
수평수 떨구며

열룩진 내 얼굴을
쓰다듬듯 스쳐가네 **거울**





* 글모음 *

예수님을 닮아 가는 나의 삶



김영민 ('62)

를 주라 시인(是認)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5-11)

이번에 석사과정의 마지막을 “예수님을 닮아 가는 나의 삶”이란 제목의 신앙고백 Essay를 쓰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닿았던 성경구절 빌립보 2:5-11을 서문에 쓰며 신학공부가 얼마나 험한 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을 공부했을 때는 그 학문 자체만 공부하고 끝내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신학이란 진정 예수님을 닮아 가는 나의 삶이 되지 않고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수 없이 용서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스스로 낮추어지지 않으면 끌려 올려지지 않은 것을 보았다(요3:14-15). 빌립보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진정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사복음서(공관복음)에서의 산상 설교와 같이 수 없이 낮아지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낮아지는 연습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이미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쓴 나의 신앙 이력서는 이미 썼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난 모든 것이 선택되어져 살아왔다고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 많은 학교 중에 왜 이화를 택해졌다. 또한 Mission School 10년의 성경공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돌밭에 뿐려진 씨앗처럼(마13:20-21)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뿐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핑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였으며 순간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 마음의 깊은 뿐리가 되지 못했다.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을까! 이화고등학교 때에는 그래도 각반의 종교반장들하고만 친구하고 선교부에 들어가고 아원도 방문하고 Mission 합창단(한빛 합창단)에 들어가 일선 위문도 했었는데 이화대학을 들어가면서 세상재미가 너무 좋아 교회에도 안가고 어떤 봉사단체에도 다닌 기억이 없다. 결혼시기에 와서도 기도하고 남편감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 세상자대로만 남편감을 고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심스러우셨을까!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가만 나두지 않는다고 하셨던가. 세상자대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빼 거리기 시작하더니 말이 부부이지 혼자 사는 사람의 그 Case에 들어갔다.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결코 같이 살수 없는 Case의 부부였다.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결혼 생활 속에서 세 아이를 바라보며 수없이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 아니었으면 나는 좋은 사람 만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절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나두지 아니하셨다. 주위의 믿는 친구들이 합심하여(10명 정도)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날 우연히 들린 친구 집에서도 그 친구가 자기교회 목사님과 나를 위한 중보기도 중이었다. 또한 친정집에 방문해 누워있을 때에도 섬광처럼 눈에 보이는 십자가도 경험했고, 그래도 교회를 안나가니까 내가 살고 있는 Apt. 밑층의 교인을 부쳐주어 친구 되게 해주시고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소풍으로 알고 따라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 기도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참회하였다! 눈이 붓도록 울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 따라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믿음의 뿌리 약함을 아셨는지 나의 둘째딸의 교통사고로 나의 간절한 서원기도 “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게 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딸은 회복되었고 입 속의 혀 치료만 받은 둘째딸은 지금 건강하고 Gospel Song을 하는 Solist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에 오게 하셨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의 문제로 항시 가슴 답답함을 담고 살았던 시절이기에 사람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셨을까!

성경도 집에서 안 읽고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다음 주일에 Pick up 했을 때에도 나를 보시고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셨는지 복음 말씀을 열심히 즐겨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베다니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웨슬레 성경 반을 공부하게 하시고 우연히 옛날 뉴저지 교회협의회 때 알던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사님을 따라 간 곳은 “New York United Theological Seminary” 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이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성경”을 교재로 한 성경을 9년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던 중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만 만족 할 수 없어 나처럼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상담센터에도 취

직도 하고 또한 미국 상담 대학원(Blanton-Peale Graduate)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상담도 신학을 밟았으로 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New York United Theological Seminary”를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많은 과목을 하나하나 열심히 신중히 공부하던 중, 진정 그 누가 성경말씀이 꿀 송이라고 했던가! 매일 깨지고 기쁘고 보람되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그곳에도 나를 도와주라고 Elisha 목사님을 불여주신 하나님! 오래 동안 하지 않았던 방언을 다시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 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래 동안 낫지 않았던 나의 발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공부하며 의문이 있거나 꾀가 날 때에도 열심히 기도해주는 기도용사 큐티멤버 김권사님을 불여주신 하나님! 집안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해주던 둘째딸 Jenna를 나의 곁에 응원군으로 결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남편의 변함이며 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 문제를 편하게 해주었던 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때에도 신앙 간증을 쓰게 하시더니 다시 졸업할 때에도 이 간증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산 증거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를 Ride하셨던 권사님이 자기 부인이 그 어떤 사람도 그 차에 타면 싫어했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고 말씀하셨다. 그 권사님 장모님도 공부하는 것에 대해 기특해 하시고 많은 조언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시 제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잠언16:9)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제일 처음 목표했던 대로 상담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한다.

이제 내년이면 육순이니 그 공부 끝내고 얼마나 일 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생명 다 하도록 전진 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목표를 알려면 아직도 모자라오니 저의 곁에 항상 성령님 부처 주시와 제가 옆길로 가지 않게 돌아보아 주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 무엇을 달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글은 석사과정을 끝내면서 손 신앙간증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박사과정에서 “Christian Counseling”으로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에서 Ph.D.(5.13. 2005)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열린문 감리교회에서 상담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다. 7-15



메리 스크랜튼 여사님!

메 아리쳐 울려오는 주님의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경순히 마음속 깊이 세기시며



김수자('61)

리 역만리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오시어
동방의 한줄기 새빛이 되시다

스 스스로 여성의 본이 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으시며

크 신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드리며
불우한 한국 여성 교육 사업에 헌신하시다

랜 툰씨준(고난주간)을 거쳐서
영원한 부활을 주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트 퉁한 몸에 지덕을 경하여 약한이 힘되고
어둠의 빛되게 우리들을 교육하시다.

여 기 오늘 당신의 후손 이화의 귀한 아름다운 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사 랑합니다. 메리스크랜튼 여사님,
우리들은 자유, 사랑, 평화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님, 주님! 스크랜튼을 복 주신 주님,
우리 이화에게도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화학당개교 120주년을 기다리면서
2005년 5월 7일



* 글모음 *

독도에 띠우는 편지



김영자 ('61)

본인은 미국 이민생활 삼십여년 되는 교포로, 지난 2월 17일자 뉴욕 한국일보 사회면에 실린 “독도 ‘이웃사촌’ 생긴다”를 읽고 감개 무량했습니다. 김성도씨 부부와 시인 천부경 선생님께 감사 드리오며 그분들 독도 정착의 길을 열어주신 해당 정부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뉴욕에서 육이오 53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열한시가 넘어서 외출 하느라 라디오를 끄려고 하는데 마침 어떤 대 공영방송을 호스트가 동남아 정세 전문 가를 모시고 한국동란에 대한 좌담을 시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요? 대충 들리는 말인즉,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침략으로 발단했는 데 3년 후에 휴전선으로 그어진 한반도의 38선은 반세기 지난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혐악하고 유일한 분단지로 남아 있으며, 그 아들 김정일의 북한은 현재 최소 두 세 개의 핵폭탄을 소유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의 핵 확산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동남아 내지 세계 안전에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등등…… 사실, 틀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특유의 복잡다단한 역사와 정세를 곁핥기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마침 그때 그 호스트가 말하기를 청취자들의 전화를 환영한다며 번호를 대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박식한 교포가 전화 좀 해서 시원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해 주었으면 했는데, 곧 이 프로가 끝날 것이라 생각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집어 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제 전화 신호가 계속 울리는 소리와 제 가슴이 쟁쟁 뛰기 시작하면서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 이러지? 하고 전화를 포기 하려고 할 차 어떤 조용한 남성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묻고서 연결되었으니 시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눈 앞이 깜깜해지는가 하는 동시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습게 들리겠지만 아마도 호수천신이 급히 임해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의 코리안-아메리칸 인데 지금 미국 청취자들 중에 한반도의 38선은 한국 동란 때 생긴 것이 아니고 전쟁발생하기 5년 전에 미국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분단선 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얹압되어 있다가 이차대전 후 일본이 철퇴할 때 미국은 한국 대표자 한 사람도 개입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갈라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38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서 일본 이름으로 명명해 놓고 자기들 고유물이라고 공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곤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기하고 우리 영해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들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대대적으로 이슈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대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해 왔고 언제라도 다량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남한은 투철한 민주국가로 성장해 왔고, 미국의 성실한 우방국으로 이바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도모하고 기여해 주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묘한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아마도 타향살이에서 백발이 무성해지니 고국이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그리워졌다 봅니다. 한편, 액센트 다른 영어로 두서 없게 들렸을 저의 호소를 끝까지 들어 준 그 호스트가 무한히 고마웠고 이 소시민의 목소리가 고전파를 탈 수 있었던 미국의 민주사회도 고마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도여, 이제 한민족의 한없던 눈물로 천년 기다려 준 그대의 이끼 덮인 얼굴 씻게 되었으니 그대의 찬란한 등댓불로 백두산봉 한라산까지 밝게 밝게 비쳐주고 김씨부부, 천부경 시인, 그리고 그대 찾아주는 모든 애국자들 신의 축복 받으시고 건강 무궁 하시옵소서!



은퇴 (Retirement)



최재숙 ('63)

은퇴는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즐겁고도 행복한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행? 산속의 조그만 산장구입? Golf Resort Community? 이러한 꿈을 만족시키려면 은퇴 투자수단들을 점검해 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의 풍요한 은퇴를 즐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은퇴전의 생활비의 75%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0년 또는 20년, 30년 후에 어떤 비용들이 들 것인지? 은퇴 후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지? 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저축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생애에 꾸준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확실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우자와 같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은퇴를 위해서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10년 이상 일하면서 Tax를 낸 사람은 65세나 68세 후에 정부에서 Social Security Income을 받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의 Pension이나 401K를 통해서 저축했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축해온 Personal Saving을 이용해서 Lifetime Income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A나 Annuity를 통해 축적했던 것으로 Life Time Income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와 Annuity, 401K 같이 세금공제를 받은 상품들은 59.5세 이후에 살수 있고, 70세 전에는 반드시 쓰지 않으면 벌금이 가로 됩니다. (50%)

중요한 것은 은퇴후의 수입과 지출을 자세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생활비를 줄일 방법과 은퇴자금을 늘리는 방법들을 투자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 군모옹 *

寶石街의 散策



서재숙 ('64)

(1) 보석예찬

블랙오팔(Black Opal)을 확대경으로 들여다 보라. 마치 늦가을의 첨첩 산중을 헤매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정경에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보석이 왜 귀하냐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석은 값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잠재하고 있다.

보석은 첫째로 수백만 년의 긴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나의 보석이 여성의 부드러운 손가락에 끼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지질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약 4천만년 전에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분출된 용암이 지구표면에 깔리기 시작하여 무한한 열과 압력을 받으며 수백만 년을 견뎌오는 동안 보석으로 탄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지진으로 인한 지각의 변동이나 풍화작용 등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지구표면에 돌출되기도 하고, 산의 정상에서 개울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며, 혹은 대양(Ocean)속에 묻혀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인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보석은 깎이지 않은 원석 그대로인데 최대한의 크기와 정교함을 보존하기 위해 연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원석이 정교한 보석으로 깎여지기까지는 작게는 보름에서 수개월, 크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기기도 한다.

보석의 진귀함이나 아름다움은 지구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 단단함이 특징이어서 다이아몬드의 경우 부서지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게 되어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식의 징표로 애용되고 있다.

보석은 인간과 늘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예쁜 손가락에서 혹은 사슴처럼 긴 목에서 아름다움의 진실을 속삭여 준다. 빨간색의 루비(Ruby)는 그 주인의 열정을 대변해 주며, 파란색의 사파이어(Sapphire)는 주인의 지성미를 암시해 준다. 초록색의 에메랄드(Emerald)는 영원한 사랑을 연상하게 하며, 신비스러운 진주의 은은한 색상은 인어(人魚)의 청순함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보석을 감사고 있는 디자인(Design: setting)은 주인의 안목을 엿볼 수 있게 하며, 부(富)를 상징해 준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사람들보다도 배신이 없는 보석과의 대화가 더 다정스럽고 미더워지기도 한다. 침묵 속에서 미소 짓는 보석은 정녕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 아닐까 생각한다. 71쪽



그려운 이화동산의 추억들



어혜숙 ('67)

내가 이화여중에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사촌언니 셋이서 이화에 다녀서 나는 이화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입학경쟁은 매우 심하였는데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어 이화의 식구가 되었다.

합격하기 전 입학시험을 보고 엄마가 맞추어준 예쁜 투피스에 브로치를 달고 양쪽에 사촌 언니들의 팔을 끼고, 교정을 걷고 있는데, 어느 어수룩한 사람이 수첩에 무엇을 적으며, 나의 브로치를 보면서 “벌써 합격했다고 엄마가 예쁜 브로치를 사 주신 모양이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신문기자인가 보다 하고 무심히 대답했다. 언니들이 나를 치면서 “그 분이 누구신지 아니?” “신봉조 교장 선생님이야” 하는 것이었다. 너무도 수수하시고 꾸밈이 없으신 모습에 나는 그만 실수를 한 것이었다.

또한 중학교 때 학교 교정을 공사하느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먼지를 내며 채질을 하면 교장 선생님은 꼭 지키고 계시다가 학생들이 다 지나간 후에 채질을 하라고 주의를 주시곤 하시며, 학생들에 대한 자상한 사랑을 보이셨다. 노천 강당에서의 채플시간에 신봉조 교장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편지 걸봉을 뒤집어서 그 여백을 사용하라고 하시며, 편지 걸봉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말고 아껴서, 생활 속에 겸소함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또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듣던 노천강당에서의 그 귀한 chapel(채플) 시간들도 생각난다. 노천강당이 굉장히 커 보이던 중학교 일학년 때 나는 언제 저 고등학교 언니들 자리에 가게 될까 하던 날들이 어느덧 벌써 고3의 자리에 앉게 되던 때의 감격, 매번 국경일과 특별행사일마다 노천 강당에서 날려 보내던 하얀 비둘기 떼들…

등나무 그늘 아래서 야외 수업을 들으며 그 그윽한 등꽃 향기에 취하던 일들 라일락 나무 밑에 앉아 시험공부 하던 기억, 장미꽃과 목단 꽃이 만발한 개교 기념일의 운동장에서의 매스제임.

초겨울 누렷누렷한 잔디밭에 앉아서 담 넘어 사온 군고구마를 친구들과 비둘기들과 함께 나누어 먹던 그 따뜻한 추억들 매주마다 연재되는 “거울” 지에 실린 [빨강 머리 앤]을 목마르게 기다리다 나오면 탄성을 지르며 받아 읽던 일들…

변선환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도스또옙스끼의 [죄와 벌]의 해설, 윤명로 선생님의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에 대한 열띤 강의들, 우리들의 작은 가슴과 머리를 순수한 철학과 종교와 예술로 수놓아 가시던 선생님들의 정성스러운 가르치심 들.

우리 인생 중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순간들을 낭만이 가득 찬 평화와 사랑과 자유의 이화동산에 서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들의 앞날의 등불이 되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성실하신 가르치심에 감사 드리며 이화에서의 값진 추억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본다. 11월



* 금모음 *

배꽃 그늘에 앉아

배꽃 그늘에 앉아 그대에게 전하리
 내 언제나 꽃향기로 살고 있음이
 노천극장 돌층계에 머물던
 낯은 목소리 지금도 듣기 때문이라고...



허금행 ('68)

새벽 나를 깨우고
 서쪽 하늘로 흘어지던 그 날들의 빛으로
 우리는 울타리를 만드네
 푸르름의 단어와 스승의 솔향기
 작은 가슴마다에 새겨진
 그리운 정동 32번거...

사랑을 사랑이게
 견딜 것을 견디게
 홀로 일어서게
 우리의 깃발로 나부끼게
 작은 손을 잡아 함께 글쓰던 귀절마다
 자유 평화 사랑으로
 수많은 작은 불을 밝히네

못 다 배운 교훈도
 스스로 깨달는 거혜의 뿌리로
 토양 좋은 밭에 자라게 하여
 이제, 120년의 나이テ로 수많은 열매를 열었네..
 자꾸 자라나서
 배꽃그늘이 온누리를 덮는 그때

우리는 다시 말하리
 비둘기 나르던 예배시간과
 맑은 소리로 뛰어다니던 노란 테니스볼과
 잉크냄새 흘어지던 "거울" 거의 수필과
 등나무 오솔길에,
 새벽기도의 평화로움이
 활화산의 신비로운 빛으로
 홀로 빛나고 있다고... 71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를 다녀와서

조문경 ('72)

오늘따라 마음 쓰여지는 얼굴의 잔주름과 거뭇거뭇한 잡티들은 화장을 할수록 더욱 두드러져서 내 마음을 어둡게 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보여주는 나의 이력서로 이쁘게 봐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두운 마음을 털어 낸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서먹서먹해 하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름까지 기억해 불러주는 동창들을 보면서 역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순서를 정성 들여 밝은 얼굴로 진행하며, 좋은 추억거리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동창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이화 교가를 부르는 순서에서는 종이에 쓰여진 자잘한 교가 가사가 잘 보이질 않았다. 노안을 탓하면서도 마음만은 30여 년 전 노천극장에서 부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 목청을 한껏 높였다. 초대되어 오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되고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이라 금방 알아 볼 수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했던 선생님들 자리로 찾아가니 30년만에 뵙는데도 알아보시고 지난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며, 이제는 50대의 철없던 제자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에는 많은 감회가 어리는 듯 했다. 재 상봉 파티는 각반 대항으로 진행되었는데, 30년 전에도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의 춤과 노래로 우리는 어느 새 잊혀졌던 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김포비행장에서 하루만에 다시 만난 우리들은 쉬지 않고 떠들었다. 앉으라면 앉아서 서라면 서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으로부터 조금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으나 우리는 의지의 이화인 50대의 아줌마들이 아닌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사진 못 찍어 무슨 한 맷힌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실물보다 예쁘게 찍어준다는 사진사의 꼬임에 빠져) 저녁식사 시간까지 추억의 사진을 찍었다. 꼬셔도 안 따라다닌 몇몇 친구들은 사진 나온 후에 후회 좀 했을걸! 자꾸 따뜻해지는 친구들의 눈길과 진해지는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진다.

누구와 온들 이리도 즐겁겠는가! 제주도의 경치는 눈에 잠깐 잠깐 들어올 뿐 하루종일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함께 있는 친구에게 있었다. 하루종일 관광으로 골프로 몸을 꽈 혹사하고도 이 50대 아줌마들은 힘이 넘쳤다. 황금 박쥐같은 멋있는 동창 하나가 나타나 저녁 내내 우리를 정신없이 즐겁게 해주더니, 밤늦도록 춤과 노래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였다. 아무튼 나는 40년 재 상봉 때 그 동창 오면 꼭 와야지 하는 엉뚱한 결심을 했다.

아침에 산책 나간 바닷가에서 만난 친구들, 소나무 껀안고 같이 사진 찍은 친구들,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우리들은 그때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내 가슴에는 자꾸 자꾸 친구들의 사랑이 쌓여만 간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친구들의 얼굴에는 주름살도 잡티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의 얼굴에는 2박 3일의 추억만이 가득했고, 같이 앉아있는 나는 행복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신혜진 ('76)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전화라는 물건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도를 측정해주는 저울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걸고 싶으면 친해지고 싶은 것이고, 자꾸 걸다보면 친해진다. 전화가 뜨악해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잠정유지를 바라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장일로에 있지 않은 사업체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전화도 걸수록 할 말이 많아지고, 대화를 나눌수록 가까워진다.

'청희'였다. 우리는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함께 다닌 동기동창이다. 그러나, 대학졸업 후, 결혼해서 오랜 기간을 서울 사람, 뉴욕 사람으로 살다보니, 서로 안부가 뜸했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며 살다가, 막내를 대학에 넣고 나서, 꿀맛같은 휴지기를 갖게된 그녀가 작년, 뉴욕을 방문하면서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나선, 이따금 양보할 것도 없이, 경쟁할 것도 없이 오늘처럼 전화를 주고 받는다.

그녀의 아침 풍경이 떠올랐다. 남편은 모처럼 골프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겨울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듯이, 고층 아파트의 꼭 닫힌 창문을 노크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속속 외출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 것이다.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가 조금은 느긋하게,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나갔다고 했다. 딸의 뒷모습에서 문득 예전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녀도 친구 생활이 난 것이 아닐까? 세월의 흐름이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잘 들어맞질 않는다. 갑자기 커버린 아이들을 볼 때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과 대면했을 때, 비로소 그 흐름만큼, 변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는 말만한 딸을 가진 어미답게 시집보낼 걱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나는 최근 한국 방문 때마다 느꼈던, 달라진 한국여자들의 위상을 기억하며, 우리 때와는 다른 '요새 아이'인데 뭘 걱정이냐고 했다. 정해줄 생각일랑 말고, 제가 알아서 저 좋은 사람과 하게 내버려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런 저런 말 중에서 오늘이 그녀가 하고 있던, 과거로 거슬러 가보는 추억여행의 뒤큟쯤 되는 시점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경희가 퇴직을 했고, 그래서 집에 불러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고 했다. 양념처럼 곁들여진, 친구들 얘기와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느닷없이 내가 서울가면 보여 줄 선물이 있다고 했다. 그건 다름아닌 내가 6학년 때 그녀에게 보낸 색종이를 오려붙여 만든 크리스마스카드라나. 그것을 프레임해서 보여 주겠다는 따뜻한 계획을 나에게 밝힌다. 그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갑자기 친구와 함께 '쌍무지개 뜨는 언덕'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만다. 그 원초적인 아날로그 세계로 갑자기 초대되었다. 내가 5학년 때 전학 갔을 때, 친구가 된 우리는 곧 단짝이 되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우리는 성격도 비슷했다. 새침떼기마다 깍쟁이. 입을 맞추어가며 '국민교육현장'을 외우던 생각이 난다. 하교길엔 손을 잡고 걸어서 집에 오곤 했다. 숙제도 많은 날을 같이 했었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멀어진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사람은 서울에서, 한 사람은 뉴욕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 사이사이의 만남에서도, 많고 많은 얘기를 토해낼 시간은 갖지 못했었다. 서로 너무 바빴으므로. 친구는 말을 이어간다. "혜진아, 너 아니? 올해가 우리 여고 졸업 30주년인걸. 올해는 동창회를 좀 크게 한다더라. 너도 꼭 나왔으면 좋겠다." "너 보고 싶다는 애들 많아." 이 나이의 여자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친구가 맞다. 나는 무슨 모범답안을 찾은 것처럼 웃음이 헤퍼진다.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대꾸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진다. 전화해줘서 고맙구, 날 기억해줘서 고맙구, 그렇게 날 위해서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친구란 작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준 사람이란 걸 새삼 느끼게 된다. 내가 음미할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해주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준 사람... 이런 말이 생각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축복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 거라고.

그 두 사람은 분명 친구일 것이다. 친구란 그런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엔 이유가 없다. 단지, 친구라는 이유만이 있을 뿐이다. 산이 있어서 오르듯이, 속물냄새 훌훌 털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진다. 내 앞에 걸려있던 그림 속의 '친구'라는 정물들이 오늘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 Greater NY 각 기 동문 소식 •

본 NY 동문회는 모교 개교 120년을 기념하는 특집 Newsletter을 기획하면서 지난 2005년 10월말에 각기 대표 동문에게 찬조금과 각기 동문 소식을 전해 주십사 하는 편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협조해 주신 기 대표,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49년 동문 박이자 동문께서 찬조비만 협조해 주셨으며 본 회에서 관계 자료를 입수 못해 Class of '49을 소개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Class of '46

참 놀라운 이름 이화, 참 아름다운 동산 이화, 참 훌륭한 산 교육 이화.....

소화, 명숙, 우리의 그 먼 날 이화의 4년, 놀랍고, 아름답고 그 훌륭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떠한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계획하던 일본은 우리 이화의 교명도 바꾸게 하려고 끈질긴 노력을 했었지. 신봉조 교장 선생님의 온유하면서도 강하시게 반대하시며 참고 참으셔서 다행히 아름다운 이름 이화를 간직 할 수 있었지.



지금도 이화교정에 가면 라일락, 등나무 등 모두가 있지. 우리에게는 더욱 더 추억을 되살려 주는 것들이 아니겠니? 그 옛날 그 먼 옛날에 기숙사 뒤의 라일락 향기가 은은히 퍼질 때 그것은 코로만 냄새 맛는 향기가 아니었지. 그 냄새와 함께 우리 모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지. 꾸불꾸불한 등나무 밑을 거닐며 우리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우정을 주고 받았었지. 사계절을 따라 오색 찬란한 꽃들은 우리 모두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었어. 초록빛 잔디 밭에 누워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미래를 계획했었지.

(소화 말씀) 나는 농구선수였지. “선배님 너무 멋있으세요” 하는 후배들의 칭송은 그 덕분인가 해. 우린 여름이면 송도에 가서 수용도 배웠고 겨울이면 테니스 코트에 물을 부어서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도 배웠고 서명학선생님으로부터 야구(?)도 배웠지.

(명숙 말씀) 나는 합창 부에 단원으로 부민관에서 공연도 했었지. 아침 30분 일찍 학교에 가면 클래식 음악을 선생님의 해설을 겸해서 듣곤 했지. 또는 카스텔라와 우유도 먹을 수 있게 학교에서 우리들의 건강에 늘 유의해 주셨지. 심지어는 몇 명씩 짹을 지어 앉아서 식사 할 때도 음식의 영양을 다 잘 섭취하게 하기 위해 일본 선생님(권력이 최고로 많으심)과 함께 식사, 우리는 오래오래 음식물을 입에서 씹어서 소화시키기도 했지. 우리들만이 경험하였던 일제시대, 대동아 전쟁 끝나기 바로 전, 매일 반공연습, 군복단추 달던 일, 한국말 폐지, 영어 폐지, 아침 저녁 교문을 지날 때마다 보던 일본 현병들.....

(소화 말씀) 명숙, 너는 얼굴도 예쁘고, 살결이 하얗고 머리 예쁘게 따고, 세라복 입고.. 참 예뻤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김희수 박사님과 결혼했지!!!

(명숙 말씀) 소화, 너는 나 보다 더 멋있었지!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농구 선수가 의과대학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잖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의 20년이 넘도록 이억 만리 타국, 이곳에서 동창회와 합창단으로 자주 만나며 생활 할 수 있으니 복 중에 복이 아니겠니? 합창단 공연 때 함께 노래할 수 있고 후배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니? 신봉조 교장 선생님의 귀한 교육, 늘 웃으라고 하시면서 희망을 크게 가지라고 하셨지. 늘 격려 해주시면서 큰 야망을 품게 해주시며 해방 후 한국 여성들의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셨지.

60년 후인 2006년 너와 나, 같이 늘 만나니 60년 전의 학창 시절과 똑 같은 기분, 소녀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며 아름다운 동문 합창단에서 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노래 부르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축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하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언제나 사랑, 존경 받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큰 언니가 되기를 희망 하지요. 고마워요..... 후배들.....

115



소화 언니, 명숙 언니 씀



Class of '52



이채임 회장에게,

그 동안 수고하고 훌륭히 치루어나간 여러 가지 행사에 모두 합하여 크고 큰 칭찬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 고개를 까우뚱(?) 할 것 같아 몇자 쓴답니다.

나의 설 자리를 찾는 요즈음 지난 날 뛰면서 다같이 큰일들을 해놓은 장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후배들의 설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념은 쉬우나 참 힘든 작업이랍니다. 한번 마음을 결정하면 무슨 말에도, 무슨 일에도 자기를 지켜야 자연히 흡수된다고 봅니다. 세월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뒤풀 아보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들은척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후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젊은 마음, 젊은 기운, 젊은 생각은 앞에 놓인 일들을 박력 있게 잘하십니다.
젊은 후배들을 많이 모으고 잘 기르기 바랍니다.

마지 않은 훗날에 가서야 알아듣고 칭찬해 줄 것으로 믿고 나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안녕 71회

이보영 ('52)



Class of '56



56년도 동기모임은 지난 30년 동안 Manhattan에서 15명 이상이 매월 첫 수요일 점심에 모임을 갖고 이화동산에서 키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Manhattan의 강서회관과 Fort Lee의 대원에서 바꾸어가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NY Tri-State를 방문하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은 이화를 졸업한지 반세기가 흘러 이화졸업 재 상봉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56년도 동기 중 8명이 재 상봉에 참석할 예정이고 미국 전역에서 약 30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 합니다.

2006년도 5월 30일 이화창립 12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뒤이어 56년 동기들은 제주도 남제주군에 위치한 Shineville에서 5월 31일에 감격스럽고 즐거운 재 상봉 행사를 가진 후 2일 동안 제주동의 새로운 관광지를 관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곳의 몇 동기들은 부근들도 함께 Japan이나 Vietnam / Cambodia 등을 여행할 계획 중이고 한국에서는 서해안이나 동해안 관광도 추진 중이어서 옛 여학생 때로 돌아간 소녀들 같은 부푼 기심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유관순 기념관에 설치될 유관순 동상 제작도 56년도 동기인 강은엽 조각가가 제작하게 되어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화의 정신인 자유, 사랑, 평화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순영 ('56)



Class of '58

• 동창 한정강('58)의 Concert 와 신앙 간증을 듣고 나서 •



2005년 7월 16일 토요일! 우리 58년도 이화 동창 한정강 교수가 남편 정두영 교수(목사) 와 함께 대전 침례교 신학교 교회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던 중 정두영교수가 2005년 2월22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정강 교수는 남편 정두영 교수를 그리며 지난 7월 Manhattan 아들 집에 왔다가 우리 동창들을 위하여 정두영 교수를 그리는 마음에서 Memorial Service Concert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던 중 Manhattan Lexington Ave.에 소재한 고려연합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화 후배, 한영숙 목사님이 선뜻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셔서.... 어찌나 고맙던지..... 아-하 이화 선후배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마침 Concert하기에 알맞은 소리 좋은 Piano와 고풍 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한정강 교수는 Piano앞에 앉자 마자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건반 아래 위를 마구 쳐대는 기막힌 그 소리는 진정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음악소리.....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황홀지경으로 몰고 가는 진정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정두영교수가 작곡한 복음성가 80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모두 합창하면서 흥분과 감격이 뒤섞인 순간..... 한정강 교수가 정두영 교수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날들의 고락과 행복했던 시절의 신앙 간증 또한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이여서 눈시울을 적시 우게 하는 감동적인 Concert와 신앙간증 이였습니다.

감격과 찬사의 여운을 안고 기대로 헤어질 수 없어 모두 함께 금강산 한국 식당으로 가서 온 상에 둘러 앉아 그 동안의 회포를 풀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서둘러 아쉬운 석별의 정을 안고 행복한 미소를 만면에 띄운 채.....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자.. 모두 모두 안녕! 잘가!”

이금희 ('58)



Class of '62



62년 이수회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 62년도 동창들 모임이 매달 두 번째 수요일 뉴저지 대원에서 모입니다. 회비를 모아서 선교비, 경조비, 상의금, 동창회비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진은 7명 뒷줄 왼쪽으로부터(최경숙, 이민자, 박기원, 박숙자, 김명세, 박문순, 김영민)이 찍혔지만 거의 20명이 됩니다.

12월 2005년 만나온 친구는 정영란, 강춘환, 박수자, 강은영, 정연자, 전명자, 여화자, 유정자, 이준미, 장경자 등입니다.

이번 2006년도 회장은 김영민입니다





Class of '63



우리 '63동기 모임은 인근의 New Jersey, Connecticut 또 멀리는 가끔씩 오는 Philadelphia의 극성 파들까지 합하여 명단에는 41명이 된다.

우리 '63동기에는 성인군자가 (공자, 맹자=명자, 순자, 혜자, 현자, “철자”도 성인이었던가?) 다 모였고 혹시 그것만으로 모자랄까 봐 “부자”까지 있다. 이렇게 귀한 친구들 덕분에 모임에서 큰소리나 걸끄러움 없고 늘 반가움과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꾸준히 만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Philadelphia 친구들은 너무 멀어 자주는 못 오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어서 힘을 합한다. 그뿐 아니라 지역이 New York 인지라 방문하는 친구들, 아들, 딸 유학 보내놓고 노심초사하여 자주 들리는 친구들, 게네들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보러 오는 친구들, 또 여기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비자 때문에 1년에 몇 달을 와서 지내는 친구들, 사둔 집에 들리려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장님들은 “반갑구나, 반가와…… 너무 잘 왔다!” 하면서 남편과 집안일은 제쳐놓고 맨발로 마중 나가 기뻐하며 맞느라 늘 몸도 맘도 바쁘게 지낸다. 고마운 우리 회장님들이다.

매달 한번씩 “대원”에서 만기 시작한 것은 아마 15~16년쯤 된 것 같다. 그간 회장이 3번 바뀌었으니 장기집권(?)이 된 샘이지만 해마다 모두가 고마워하면서 일치단결 하여 “너니까 이렇게 잘해내었지, 그냥 계속하렴!” 하며 큰 박수를 쳐주고 있다. 손 종임에 이어 지난 합창제가 있었을 때에는 장현숙, 그리고 지금은 최재숙이 맡아 수고를 하고 있다. 모두들 너무 수고가 많다.

지난 수요일에도 14명이 모였는데 필라에서 면 길 왔다고 “이 뜨거운 걸로 먹어라, 이건 맛있으니 먹어라… …” 하며 챙겨주는 친구에게 “쟤는 꼭 명아리 키우는 어미 닭 같이 챙겨 먹이는구나.” 하며 웃었는데 받아먹던 친구가 “어머 애, 이건 정말 맛이 있네, 너도 좀 먹어봐!” 하면서 한 숟갈 떠서 먹여주는걸 보드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어련하겠니? 어미 닭한테 잘 배우고 컸으니 고대로 따라 하는 거지!” 해서 또 한번 훈훈하게 웃었었다.

내 나라에서 멀리 나와 살지만 함께 배우며 자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63친구들, 혹시 그간 못 나왔었던 친구 있으면 연락하고 좀 더 자주 만나볼 수 있기 를 바라고 있다. 71주



Class of '66

'66년도 졸업 동기 소식 및 2005 Mini Reunion

'66 동기들의 월례 정기모임은 첫 번 토요일 12:00 PM입니다. 20여 년 전에 몇몇 가까운 친구들로 시작된 만남이 이처럼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고, 그간 들고 나온 바뀐 얼굴들도 있지만 항상 더 보태지면서 지금은 20여 명이 어김 없이 매월 서로 만나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뉴욕지역을 방문 동기 친구들은 꼭 이 모임을 수소문하여 들려가곤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월 하루 '66 이화로 향해 항상 열려 있는 문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동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곳에 데를 잘고 정착, 길게는 30여 년, 짧게는 2-3년 등지를 틀면서 한 가정의 주부, 어머니, 혹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나 사회 속에서 봉사나 활동을 통해 자기의 맘은바 혹은 원하는바 직책이나 역할로 크고 작은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이바지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친정으로 감사해 할 줄 알며 살아가는 자세를 지닌 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0월의 NY '66 Mini Reunion을 기억합니다. 우연히 몇몇 가까운 친구끼리의 초대로 시작된 뉴욕 방문이 미 전역, Canada, 한국에서 까지, 정해진 날짜(10/27-10/30)를 위주로 이곳 동기들은(22명) 방문 오는 친구들을(29명) 위해 함께 일정을 상의하고 할 일들을 다투어 나눠 부담하는 등, 나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바쁜 직장에서 시기에 맞춰서 휴가를 낸 친구도 있고) 모두 한결같이 부푼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도왔습니다. Manhattan Hotel, Long Island Inn 선정, Metropolitan Opera 와 B'way Show 예약, 몇몇 친구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진 사흘저녁의 모임과 식사대접예약, NY City Tour Bus편과 맨하튼에서, LI. 끌머리의 친구 집과 Stony Brook Inn까지의 교통편 조달, 또한 자기집까지 열어 방문 온 30여명친구들 칠상 또는 저녁접대를 비롯하여, Atlantic Ocean의 바닷가와 밤을 세운 노래 여흥도 빠질 수 없는 주역거리입니다.

마지막 날인 10월3일, 이른 아침 L.I. Stony Brook Inn에서 이곳 친구의 7대의 차편으로 LI 친구의 전시회장, Vanderbilt Manor 관람 후, Phila에서 온 친구의 초청으로 Glen Cove에 있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 후 작별을 뜻내 아쉬워하며 공항, NYC로 헤어지며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나 오래 계획된 조정행사가 아니라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만남이었기에 더욱 만가우며 예기치 않은 아주 귀한 선물을 한아름 받았을 때처럼 소중하고 값진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둘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오면서 또 다시 만나게 될 날을 더욱 애태게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5월 졸업 40주년으로 이화 교정에서 더욱 많은 얼굴들과 다시 만나 나눌 즐거움을 한껏 기대해 봅니다.

이정화 ('66)





Class of '67



67년 졸업생 근황

- * 2005년 9월 10일 Mohonk에서 10명 동창이 점심, 등산, Sfternoon Tea를 하였음.
- * 2005년 9월 19일 Philadelphia 근처 Cherry Hill에서 유명한 식당 Little Seafood Restaurant을 경영하는 변희봉 집에서 추석 파티가 있었음.
- * 매달 세번째 토요일에 동창 모임이 있음. 10명쯤 참석함. 



Class of '69



2006년 2월 중순 동 향미의 방미로 오랜만에 한번 만나게 될 대부분 우리동기들은 “무소식이 희소식” 이다라고 굳게 믿는 친구들입니다.

2005년에는 민명숙이 딸을 출가시켰고 정창옥은 아들과 딸을 한 해에 결혼 시켰습니다. 물론 남광희나 송순옥처럼 Multiple Grandchildren 을 둔 친구도 있고요. 2005년 10월말에 서울에서 정인덕이 다녀가는 바람에 졸업 후 처음으로 정인덕과 송순옥을 만나서 즐거웠는데 마침 Texas에서 사는 문제선이 정성혜와 같이 모였고 민춘식도 함께 자리하였다. 점심 후 전명혜, 정인덕과 이상은 셋이서 King Sauna에서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화와 편지로 소식을 나누던 임수경이 Long Island 친구들과 드디어 만났고 (전명혜, 김란숙, 배숙나) 남편들과도 같이 모여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데 네 남편 모두 함경도 사나이들이라고 가자미식혜도 나누어 먹을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진 1,2 은 2001년 이해경이 New York에서 West Coast로 이사 가기 전 (몇 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운 곳으로 이사 가기로 작성) 열 친구가 만나서 찍었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김공주, 이해경, 정창옥, 박승화, 최영인, 뒷줄 왼쪽부터 이상은, 정성혜, 민춘식, 배숙나.

사진 3,4은 2004년 5월 Delaware의 남광희 집으로 New York과 New Jersey에서 한 Team, Washington D.C. area에서 한 Team이 모여 근처 Longwood Garden 구경하고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짧은 시간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광희와 언제 Sleepover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Orchid 가 만발한 속에 최영인, 이선희, 정창옥, 이상은, 민명숙, 이효순, 김혜경이 예쁘고 Tulip Field에 최영인, 이효순, 민명숙, 정창옥, 남광희, 김혜경, 이선희가 예쁘게 웃고 있어요.

김문자, 신은호, 최용선, 유보혜도 잘 지내고 있고 North Carolina 의 이수자도 최근에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Washington D.C. 의 고경혜와도 가끔 소식을 주고 받습니다. New York City의 안영자도 Hunter College에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가끔 전화로 소식을 나눕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서로 연락 좀 하고 지냅시다. 71%

이상은 ('69)



Class of '70



2005년 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LA, Las Vegas, Sedona, Grand Canyon 등으로 졸업 35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약 70명 가량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6년 3월 19일부터 일주일간 36주년 기념으로 Spain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손꼽아 3월을 기다립니다. 170

김정선 ('70)



Class of '71



저희 '71기는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New York, New Jersey, Philadelphia, Baltimore, Boston에 사는 동기생과 때로는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들과 같이 모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동기생들은 약 30명 정도이며 매달 만나는 친구들은 12~15명 정도입니다.

금년 졸업 35주년 되는 해이어서 서울에서 오는 동기생과 미주지역의 친구들이 LA에서 Mexico로 가는 Cruise 여행이 4월말에 있습니다.

모이는 친구들 명단은, 김명신, 김경희, 김성희, 김양신, 김선주, 김영미, 양승효, 양보영, 유경호, 장순영, 이재은, 이영숙, 최남숙, 최황숙, 홍경애 [16]



Class of '72



이재현 ('72)

우리 동기들은 중학교 때 600명이 입학했으나, 중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이화여중은 폐교되고 고등학교 때는 600명을 더 톱아 1200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문 선배들보다 미국에 사는 동기들도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화를 다닌 학생들은 타교에서 온 학생들을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1971년 서명학 교장선생님께서 은퇴하시고 정희경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셔서 학교에 젊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모범생이었던 친구들 말을 들으니 다른 학교보다 너무 자유롭고 좋아서 자기는 여고 시절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해 준다는 이화여자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혐오할 정도로 학교교육을 싫어하였습니다. 제도적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의 개성과 창조력을 파괴하고 인간을 획일화시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매년 데모 때문에 학기가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휴강..... 또 휴강. 빠진 수업은 페이퍼로 메우고..... 그러다 보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처음으로 동창회 명단을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 미국 동부지역 72년 졸업 동창회원 명단에 있는 사람은 50명입니다. New York에 17명 New Jersey에 20명, Pennsylvania에 3명 Maryland에 5명 Virginia에 3명 Delaware에 1명 Massachusetts에 1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미국에 온 동기들은 주로 음악을 하는 친구들로 70년대 중반에 음악공부를 하러 유학을 온 친구들입니다. 본인 또는 남편이 유학으로 온 사람이 17명, 의사 남편 따라 온 사람이 5명, 재미교포나 미국인과 결혼하여 온 사람이 6명, 주재원으로 왔다가 계속 살게 되거나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20여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동창들이 방문하거나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한 동창이 있으면 초청한다거나 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모이다가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정식으로 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동기들 집마다 돌아가며 방문하여 모임을 갖고 모금을 하여 30주년 행사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3년간은 일년에 네 번씩 모임을 가졌으나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관계로 참석하기가 힘들어 2년 전부터는 봄, 가을로 일년에 두 번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미국 양로원 방문, 통역 등으로 봉사활동들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조직화하여 올해부터는 북부 뉴저지 지역의 동기들이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 한국노인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고 시절에 가졌던 꿈과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르겠지만, 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끊임 없이 추구하는 과정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거나 친구관계거나 시간을 투자해서 공통된 화제와 취미생활을 공유해야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고 시절에 가졌던 친구들에 대한 꿈을 잊지 않고, 서로 시간을 투자하여 즐겁고 보람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동기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미국 동부 이화여고 1972년 졸업 동창회장 이재현





Class of '73

저는 회계 겸, 연락을 맡고 있는 윤선희입니다. 사실 다른 친구가 쓰기로 되어있는데 위낙 다사다망하여 마감 기일이 지나갔고 글 쓰기보다 전화가 손쉬운 요즘 용기를 내어 우리모임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동기들은 New York Up State, Flushing, Long Island, State Island, NJ 위, 중간에 골고루 퍼져서 살고 있고, 연락 되는 친구들은 20여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88년도쯤에 몇몇이 모이기 시작하다가 89년도 봄에 정식으로 첫모임을 가졌었는데 많은 세월과 화장으로 인해 조금씩 변한 모습들로 서먹해하다가 곧 중심으로 돌아가 어찌나 웃어대며 얘기들을 했던지 영업에 방해가 되는 듯 하여 3시간 후 쯤에 간신히 나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헤어지기 섭섭하여 그 근처에 사는 동문 집으로 몰려가서 나머지 회포를 풀고 밤늦게 귀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간난 얘기들 데리고 우유통, 기저귀들을 가지고 와서 짤짤매던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학생이 다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16년째 두 달에 한번 3번째 토요일 점심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특별한 행사로 집에 초대를 하면 저녁에 부부동반내지는 온 식구들과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갈수록 따라오는 애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2003년 여름, 박정서 동문 집에서 5월말 서울 본교에서 30주년 동창회 모임 Video를 정은숙 친구가 한국에서 가져와 다같이 모여 비빔밥을 먹으며 뒤늦게 서울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화의 배꽃이 새겨진 손 지갑 등을 기념품도 받았습니다.



늦게 결혼하거나 자녀들을 늦게 본 친구들은 아직도 막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사위와 며느리를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있게 될 결혼식, 각종 Party를 대비해 춤을 배우자는 의견이 나와 몇 년 전 두 해는 원유봉 동문 집에서 20여명의 부부들이 선생님을 초빙해 다같이 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춤이라기보다는 그저 흥내 내는 모습들(특히 남자들)을 보며 어찌나 웃었던지 일년의 Stress는, 다 풀렸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2004년 12월에는 State Island의 만백성교회를 시무하셨던 김상모 목사님의 칠순 잔치를 정은숙 동문 집에서 가졌습니다. 2005년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들이 직접 성경을 배웠기에 보답하는 뜻에서 특별 선물, 생일노래, 기념사진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봄, 4명이 여행도 처음 다녀왔습니다. 한동안 침목계도 겸하여 여행얘기가나와 모일 때 회비를 조금씩 내고 1년 후에 우선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는 의견으로 회비에 맞춰 3박4일로 New Orleans에 갔습니다. 거리의 재즈 음악과 유명한 거리들 (맥주냄새가 낮에도 물씬거리며 나는) 박물관, Shopping 밤의 Show Parade, 그 지방의 특유음식들을 먹는 등 참 좋았지만 잠자리에 누워 한방에서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과의 있었던 지금은 추억이라며 얘기 할 수 있는 숨은 얘기들을 들으며 밤 깊은 줄도 모르고 재잘거리며 웃던 시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태풍으로 파괴된 그곳을 TV로 보며 마음 안타까웠지요. 우리의 첫 추억이 있는 곳 하루속히 제 모습 찾기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은 현모양처 은행원, 간호사, 복덕방, 회사인, 쿠몬교실, 한글학교교장, 교회봉사, 여행사, 사업 등 다양한 일선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유 있는 여행 등은 이론듯하지만 차츰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매번 조의금, 축하금, 송별회비, 집들이 등 특별 행사 때마다 늘 협력해준 동기친구들께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임이 서로에게 도움, 위로, 힘이 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동시에 보람되는 작은 일들도 차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화”라는 전체동창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모습도 기대해 보며 이만 소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⑪



Class of '74



모교 개교 1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복을 입고 등나무 밑을 거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한지 30년째가 되어 갑니다.

자유, 사랑, 평화의 이화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하려 노력하며 저희 74년 동기들은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근교에 사는 13명이 매달 3번째 수요일에 만나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교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ACCESSORIES/CHARACTER PRODUCTS/BACK-TO-SCHOOL ITEMS/GIFTS © morning glory

1년 365일 성성한 과일과 야채
한국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한국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한양마트/한양문화재단(HQ)
62-11 35th Ave.
Woodside, NY 11377
T. 718.205.0575/F. 718.458.5173
www.hanyangmart.com

플러싱지점
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 718.461.1911/F. 718.939.5964

뉴저지지점
433 S. Washington Ave.
Bergenfield, NJ 07621

우드사이드지점
49-05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T. 718.458.8052

한양고국통신판매
62-11 35th Ave.
Woodside, NY 11377
T. 718.205.0575/F. 718.458.7337
www.hy1004.com

한양마트
HANYANG ASIAN MART

모닝글로리/MGSW
62-11 35th Ave.
Woodside, NY 11377
T. 718.476.2020/F. 718.476.1680
Toll Free 877.647.1880
www.emorningglory.com

morning glory

Congratulations

이화 120 주년을 축하 합니다

알파인 고전 가구점

연 미 화 ('60)
(212) 532-5067
230 Fifth Ave.
New York, NY 10001

이화 여행사

김 은 애 ('64)
(212) 244-3345
350 5th Ave. #1508
New York, NY 10118

GOLDPLUS diamond plus

서 재 숙 ('64)
(212) 354-8988
20 W. 47th St.
New York, NY 10036

RADIO KOREA / 1660 (718)-358-9300

엘리트 아카데미
임 은 재 ('70)
718-358-3432

석창호 위장내과
최 성 남 ('66)
718-461-6212
(Flushing Plaza 27)
1-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이종성 산부인과
허 금 행 ('68)
212-736-1464
718-539-2278
16 W. 32 St #901
New York, NY 10001



알려 드립니다

* 개교 120주년 축하예배, 작은 음악회 및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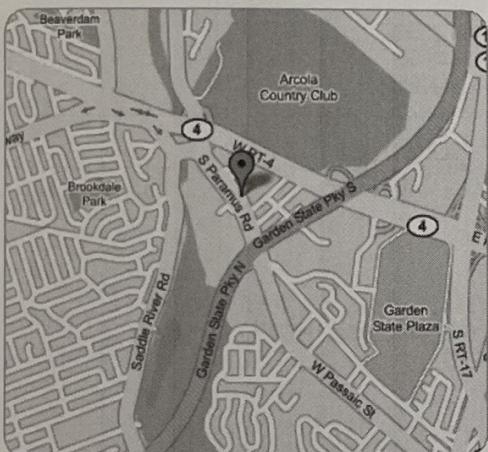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우리의 120주년 생일을 함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2006년 4월 30일 (일요일)

시간: 저녁 5시

장소: 아콜라 교회

(S-52 Paramus Road, Paramus, NJ 07652 / 201-843-7970)



1) Root 4에서 오시는 길

4번 도로 WEST 방향으로 타고 오시다가 Paramus Rd. South 램프를 (U-turn for Hackensack/New York) 이용하셔서 회전하시면 신호등이 보이는데 두번째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Mack Dr.) 유턴하시면 정면에 교회가 보입니다. 그대로 직진하시다가 교회를 끼고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2) I80을 이용하시려면

West or East 모두 62번 Exit으로 나오셔서 Garden state Parkway North를 이용하십시오.

Toll(35센트)을 통과한 후 바로 160번 Exit으로 나오시면 신호등이 나오는데 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신 후 0.2마일 가량 오시면 오른쪽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 Greater NY 총 동창회 - 새 (19대) 회장단 선출

날짜: 2006년 6월 24일 (토요일)

시간: 낮 12시

장소: NJ 대원

(700 Palisadium Drive Cliffside, NJ 07010 / 201-224-2211)



동창회비 내신 분

(07/01/05 - 06/30/06)

(2/27/2006 현재)

박소화('46)	최정욱('54)	김수자('61)	송경순('65)	현현숙('66)	김옥희('72)
한명숙('46)	강홍순('55)	김영자('61)	이익희('65)	김명희('67)	김현애('72)
민인숙('48)	김만옥('55)	이경자('61)	김광은('66)	김정인('67)	남광선('72)
박이자('49)	김영주('55)	이상원('61)	김선애('66)	어혜숙('67)	문성혜('72)
김승옥('51)	김용희('55)	황병남('61)	김안자('66)	이명신('67)	정성미('72)
안종영('51)	전원숙('55)	김명제('62)	김애리('66)	조용남('67)	차진희('72)
강선희('52)	곽순영('56)	김영민('62)	김원경('66)	남광희('69)	고혜경('73)
안종인('52)	김성자('56)	박기원('62)	김희자('66)	안영자('69)	박상희('73)
이보영('52)	박영자('56)	박문순('62)	박경원('66)	이상은('69)	정은숙('73)
김애선('53)	임정애('56)	이민자('62)	박선희('66)	전명혜('69)	민혜식('74)
김옥석('53)	전월수('56)	정연자('62)	박순애('66)	최영인('69)	박영옥('74)
김정수('53)	이선덕('57)	김국지('63)	박혜자('66)	김정선('70)	오봉희('74)
남일연('53)	장정희('57)	서자명('63)	심재경('66)	석경혜('70)	이주예('74)
방경자('53)	최정숙('57)	손종임('63)	원인순('66)	장수영('70)	이항금('74)
성희모('53)	김정혜('58)	신용식('63)	유기자('66)	김명신('71)	조해선('74)
이희순('53)	백옥희('58)	이군자('63)	이영순('66)	김양신('71)	김순희('76)
최은희('53)	조봉옥('58)	이완실('63)	이영희('66)	양보영('71)	박인선('76)
문정희('54)	이여란('59)	이학엽('63)	이옥순('66)	양승호('71)	신헤진('76)
박정란('54)	인청자('59)	장현숙('63)	이정애('66)	유경호('71)	이승아('76)
방금옥('54)	연미화('60)	전영숙('63)	이정희('66)	이영숙('71)	
오진환('54)	윤영자('60)	최재숙('63)	이종래('66)	장순영('71)	
원숙자('54)	조소자('60)	김우순('64)	이채임('66)	최남숙('71)	
이애자('54)	최경숙('60)	박희선('64)	정화영('66)	최황숙('71)	
이영재('54)	한혜자('60)	서재숙('64)	지숙희('66)	홍경애('71)	
장기숙('54)	김경자('61)	김정순('65)	최성남('66)	김금수('72)	

동창회 기금 내신 분

(07/01/05 - 06/30/06)

(2/27/2006 현재)

\$ 1,000 +	문정희('54)
\$ 500 +	한명숙('46), 이명신('67)
\$ 200 +	김승옥('51), 연미화('60)
\$ 100 +	박이자('49), 이보영('52), 성희모('53), 원숙자('54), 장기숙('54), 최정숙('54), 곽순영('56), 임정애('56), 김경자('61), 손종임('63), 서재숙('64), 김희자('66), 이채임('66), 최성남('66), 조용남('67), 전명혜('69), 김금수('72), 문성혜('72), 백옥희('58), 이민자('62)
\$ 70 +	인종영('51), 안종인('52), 안영자('69)
\$ 50 +	김수자('61)
\$ 40 +	장현숙('63), 조해선('74)
\$ 30 +	인청자('59)
\$ 20 +	

18 회장단 예산보고

(7/1/2004-2/1/2006)

내역	수입	지출	내역	수입	지출
17 회장단 잔액	\$ 2,454.94		동창회비 for 서울 동창회 fr 각기	400.00	400.00
7/1/04-06/30/05 회비 (30 x 180)	5,400.00		배재 120 주년 현금		200.00
7/1/04-06/30/05 동창기금	2,880.00		북미주 총동창회		1,000.00
7/1/05-6/30/06 회비 (30 x 135)	4,050.00		아콜라교회기금의밤 (2004/2005)		200.00
7/1/05-6/30/06 동창 기금	4,560.00		우표		858.85
2005년 1/15 신년 파티	16,410.00	14,865.87	출판사 (Newsletter,Programs, etc)		2,472.00
2004년 8/30 Picnic	660.00	692.12	Video / CD Income	420.00	160.00
2005년 6/28 Picnic	1,020.00	1,165.73	기대표, 행사 준비 모임 점심 (4번)		543.99
2005 모교 장학금 (교복 감사금)		4,000.00	CPA for 이화 IRA 서류 복원		400.00
2006 모교 장학금		2,000.00	사무 비품/06이화수첩/사진 copy		286.42
동문 (14동문) 위문/ 조화/ 축하		1,234.11	각기 협조 for 120 주년 특집	3,500.00	
심지선 선생, 강병훈, 조영준 이사장님		800.00	합창 (09/12/05- 현재)		
김경자 미감리교 여성국회장 취임식		440.00	지휘, 반주자		1,200.00
지휘자(120) / 반주자(120)			아침, 점심/ 사무 비품 등		389.20
아콜라교회(100) 취임헌금(100)			아콜라 교회 감사(200), 청소부(30)		230.00
				39,300.00	33,538.29
					잔 액
					5,761.71



임원

회장 이채임 (66) 212-362-0041

총무 최성남 (66) 516-466-0399

회계 심재경 (66) 631-544-0671

서기 이영희 (66) 973-942-8277

서기 전명혜 (69) 516-791-2745

합창단 김수자 (61) 201-568-9352

합창단 김현애 (72) 201-363-9185

각 기래표 연락처

1946 : 한명숙 (201) 445-7161	1949 : 박이자 (212) 595-9866	1951 : 김송옥 (516) 791-8680
1952 : 이보영 (718) 961-9075	1953 : 방경자 (718) 353-5288	1954 : 최정욱 (732) 888-9430
1955 : 강홍순 (201) 224-6006	1956 : 이금영 (201) 969-2107	1957 : 이선덕 (718) 961-0914
1958 : 이금희 (203) 855-1018	1959 : 조명희 (609) 730-0995	1960 : 이청미 (973) 696-0364
1961 : 박수자 (914) 923-2028	1962 : 김영민 (201) 447-2811	1963 : 최재숙 (609) 924-1612
1964 : 김유순 (516) 627-5412	1965 : 김기경 (718) 460-5001	1966 : 이정화 (516) 484-4305
1967 : 이명신 (201) 784-3812	1968 : 정경숙 (914) 669-8156	1969 : 이상은 (201) 337-1409
1970 : 김정선 (516) 933-8545	1971 : 최황숙 (908) 665-9560	1972 : 이재현 (732) 355-1097
1973 : 원유봉 (732) 706-3557	1974 : 오봉희 (201) 567-4323	1975 : 좌은자 (201) 461-7700
1976 : 이승아 (201) 871-8693		



이화창립 120주년 기념 특집
대뉴욕 동문회

거울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